

태국에서 살아가는 일상

By 이항무&전미희



선교지에서의 일상

To. 주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태국 땅에서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는 어느덧 태국에 온 지도 두 달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언어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더위에 공부하느라 문화 적응하느라 매일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우주어와도 같은 태국어가 조금은 친숙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시장가서도 쫄지 않고(^^) 물건도 사고, 단골 가게도 생겼습니다. 제가 시장 골목을 지나가면 몇몇 상인은 저 한테 "까올리(한국인)" 하면서 반갑게 인사도 건넵니다.

태국의 문화도 조금씩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더운 날씨에 적응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날씨에 익숙해지고, 더위를 어떻게 요령껏 피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루를 되돌아보면 은혜와 감사쁨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교회 캠프

현재 저희는 언어 훈련을 위해 '딱(TAK)'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70년 전에 WEC 선교사들에 의해 개척된 '딱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딱 교회는 저희의 언어 선생님이 몸담은 교회여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WEC선교회는 '교회개척'이 주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선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전도하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심방하고 교회 재정을 감당합니다. 교인이 30명 정도 되면 태국 교단에 이양하고 현지 목사님을 세워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합니다.

지난 10월에 1박2일로 교회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은 낯선 이들과 하룻밤을 함께 한다는 것이 약간의 긴장도 있었지만 귀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친목을 위해 인간 관계 훈련도 하고 나눔의 시간도 갖으면서 주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 게임을 가르쳐 주고 함께 놀았는데 아이들 반응이 예상외로 너무 좋아서 놀라기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다음세대'에 대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쿠킹 교실

‘딱’ 지역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중의 하나가 한국일 정도입니다. ‘꿈의 나라’, ‘기회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딱 교회 담임인 아논 목사님이 저에게 ‘한국 음식 교실’을 열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것 만도 시간이 부족하고 더위에 차도 없는 상태에서 장을 보고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허락하고 난 후 요리 교실이 열릴 때까지 내내 후회했습니다 ㄹ

딱 교회는 현재 어른 20여명, 아이들 (청소년 포함) 20명 정도의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 차례 교회가 성장의 아픔을 겪은 후 지금은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작은 헌신이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보이고 즐거워해서 보람이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선교지에서 보내는 첫번째 추수감사절은 저희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 저희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생각하니 감사 눈물이 흘렀습니다.

딱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한국 교회와 약간의 다른 점이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헌물 한 야채와 과일은 예배후에 다시 성도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교회 재정으로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모든 태국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두번째로는 아이들이 강단에 나와서 일년동안 감사한 것을 나누는 것이었는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전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각자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돼지 불백 볶음을 해 갔는데 아주 짧은 시간안에 '완판'이 되었지요^^





기도제목

- 건강관리 계속 잘하고, 안전사고 없이 잘 적응하도록
- 태국어 배우는 일이 어렵지만 즐겁고, 복음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는 도구가 되도록
- 12월 중순 우따라딛으로 돌아가 계약한 집 잘 꾸미고 정착하도록
- 저희 부부 각자에게 맞는 비전과 사역이 준비되도록

이항무(jrapha2017@gmail.com) & 전미희(jrapha2014@gmail.com)
